# 제 71호 잘 못 되어 가는 강의 바로 잡기: 1. 마음 점검하기

학기 중간쯤 되면 강의가 잘되어 가는지 아니면 점점 엉망이 되어 가는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. 잘되어 가는 강의는 별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굴러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. 그러나 뭔가 잘못되어 가는 강의는 별 효과 없이 힘만 잔뜩 듭니다. 학생들과 호흡이 척척 맞아떨어지면 다음 강의 시간이 기다려집니다. 그러나 강의가 한번 삐거덕하기 시작하면 그저 주말만 기다려집니다.

지난번에 가르칠 때와 비교해 다른 내용이나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닌데도 진도가 잘 나가지 않거나, 학생들과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, 강의를 하고 나면 찜찜한 기분이 금방 사라지지 않을 경우에는 "그냥 어떻게 잘 되겠지" 하면서 방치해 두시지 마시고 가능한 빨리 손을 쓰셔야 합니다.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

1. 자신의 마음자세를 점검한다.
교수님께서는 강의가 잘 못되어 갈 때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. 다른 교수님과 의논하시거나 홀로 무심히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. 특히 아래 적힌 네 가지 중에 어떤 것과 가장 유사한지요?
(1) 요즘 학생들의 실력이 예전 학생들만큼 못하다.
(2) N세대 학생들은 도무지 공부할 마음이 없다.
(3) 해야 할 일이 왜 이리 많은지...바쁜 세상에 강의가 이 정도라도 되는 게 기적이다.
(4)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?

네 종류의 생각을 다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. 극소수 우등생만 들어가던 대학이 지금은 웬만한 학생들은 다 가는 곳이 되었습니다. 따라서 대학생의 평균 기초 실력이 하향 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. 그리고 공부만이 장래를 보장하는 시대가 아닌 새시대의 학생들은 공부에 마음이 없기 마련입니다.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바쁘실 것이 분명합니다. 모두 다 사실이더라도 교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우선적으로 "선택"하시는가에 따라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첫 번째는 잘못을 타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. 학생들이 교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올 가능성조차 없다는 뜻이 담겨져 있으니, 거꾸로 교수님께서 열심히 해 봤자 소용없을 것이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. 이런 생각이 바탕에 있으면 잘못되어 가는 강의가 제대로 될 리가 없겠지요.

두 번째도 잘못을 타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. 하지만 학생들이 완전한 구제불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하기 나름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. 학업에 대해 미

지근한 학생들의 마음자세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 강의 효과도 미지근할 수밖에 없겠지요. 약간의 희망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

세 번째는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. 최고의 강의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자포자기 내지 이 정도가 최선이다라는 착각으로 스스로 위로하고 있습니다. 이 역시 별로 발전이 보이지 않습니다.

네 번째도 잘못을 자신의 노력에 돌리고 있습니다. 그 반면 학생들의 학습성취를 교수님께서 좌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. 결국 교수님 자신에게 스스로 파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 변화를 유도해 낼 수 있는 기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

다음 호에는 자신의 마음자세를 점검한 다음에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

ⓒ **조벽**, 2000